기부 바이러스 퍼트리는 '주빌리 프로젝트' 창설… 한인 2세들 광주석산고 강연

이 젊은이들의 외침 "선행은 전염된다"

'착한 동영상' 만들어 조회수로 모금 기부

외삼촌 학교서 작지만 강한 메시지 전달

"보통 사람이 만든 착한 동영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주빌리 프로젝트(Jubilee projec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 에디 리(Eddie Lee·한국이름 이영주·27), 제이슨 리(Jason Lee ·한국이름 이영원·25) 형제와 대만인 에릭 루(Eric Lu·26) 세 사람이 만든 팀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알리고 기부금을 모아주고 있다. 에디 리와 제이슨 리는 광주 석산고등학교 손용선 이사장의 조카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AIDS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15일 석산고등학교를 방문한 이들은 강연을 통해 선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행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크고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대상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커다란 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12일의 선행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캠페인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이들이 보고 수많은 응원 댓글을 달았다. 동영상은 12일간 주변 이웃에게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기는 것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빌리 프로젝트는 설립자 제이슨이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활동에서 시작됐다. 제이슨은 100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뉴욕 지하철역에서 기타 공연을 펼쳤지만 70달러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는 목표했던 100달러를 채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 유투브에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1000여명이 시청했고 그 덕분에 700달러를 모금했다. 인터넷과 동영상이 가진 힘을 실감한 이들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팀을 꾸리게 된다.

이들은 장애인, 에이즈, 성매매,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91개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동영상들은 500만건 이상 조회돼 7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아졌다.

'주빌리 프로젝트'를 만든 에디 리, 에릭 루, 제이슨 리(왼쪽부터)가 15일 오후 광주 석산고등학교 강당에서 '선행은 전염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美 명문대 졸업 후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여

아이티 돕기로 시작… 장애인·성매매 등 관심

하버드 대학 공공행정학과를 졸업한 에디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잠시 일했다. 동생 제이슨은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다. 이들과 의기투합한 에릭 역시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이다.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위치에 오른 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에 귀기울이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속 공허함이 있었어요. 때마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빌리 프로젝트와 함께 선행에 동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www.jubileeproject.org)에 있는 동영상은 조회수가 늘어나면 기업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후원금을 받게 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주빌리(Jubilee)는 성서에 등장하는 말로 '희년(禧年)'이라는 뜻이다. '희년'에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준다. 이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이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1인 평균 지방세 69만2000원

전남은 37만2000원… 광역시·도 중 최저

올해 우리나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69만2000원이며, 전남은 37만 3000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계예산 기준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105만5000원으로 작년 106만원에 비해 5000원 줄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88만4000원에서 작년 처음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4년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별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하 총계예산 규모 기준)이 135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도는 37만 3000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123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3%인 18만2000원 많았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 88만9000원, 부산 78만5000원, 인천 75만6000원, 대전 71만2000원, 대구 70만원, 광주 69만2000원 순이었다.

도 중에는 제주도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13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0만6000원, 충남 53만7000원, 경남 52만9000원, 강원이 44만5000원, 충북이 44만원, 경북이 41만9000원, 전북이 39만원 등 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지방세가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한데다 인구가 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평범한 실천이 운명 결정… 자신만의 스토리 만들어라"

'7번방의 선물' 제작자 광주출신 김민기 조선대 강연

"일단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실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관객 1000만명을 돌파, 흥행 제작자로 떠오른 광주출신 김민기(51) 화인웍스 대표이사가 15일 조선대를 찾아 강연을 하고 후배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의 강연 내용은 특별한 성공비결을 기대했던 대학생들의 바람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성공비결을 찾기 보다는 진리는 단순한 것에 있는 만큼 일상의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실과 실천 등 평범한 조건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조선대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대표이사는 이날 조선대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성공적인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만들기'를 주제로 영화계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인생에서의 소중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그는 "저는 관객들에게 꿈과 사랑, 감동을 선사하는 드림메이커"라며 'Just Do It'(무조건 해라), 'Never N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말라)을 인생격언으로 소개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개가 주인공인 영화 '마음이'를 제작할 때 주변에서 모두 미쳤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보통 영화를 촬영할 때 50회 정도 하는데 마음이는 100회를 촬영했고, 1년 내내 찍어서 결국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이사는 "이환경 감독과 함께 만든 영화 '챔프'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챔프'가 있었기 때문에 '7번방의 선물'이 나온 것"이라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점이 연결돼 선이 되듯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오는 8월 순천에서 제1회 순천만 세계동물·자연영화제를 개최한다. 동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사영화를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감상하는 영화제로 동물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알 림

제78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19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권용수 교수의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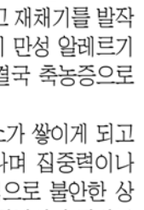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19일 제78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호흡기내과 권용수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결핵의 증상·원인, 진단·검사, 치료·예방법, 경과·합병증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

강의 내용은 오는 22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주 제 :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
■강 사 : 권용수 호흡기내과 교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전문진료
-전남대 의과대학 조교수

■일 시 : 4월 19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14시
파레스 호텔 ● (구)런던약국사거리 ● 무진주
민속촌 ●
메가박스 개업사은품 슈니팡 3개 구매시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영화관 (2층)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 금남로
주차장 입구
고객 주차장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증-4738호